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낸 수메르 전문가 조.철.수.

고대 근동 신화로 환기시킨 고대 한반도의 역사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조철수 지음 | 김영사 | 400쪽 | 값 17,900원

한국신화의 기원을 터키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지역인 고대 근동(近東)의 신화에서 추적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이하 《한국신화의 비밀》)의 저자 조철수(53) 박사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수메르어 전공자다.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궈낸 수메르는 인류문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썰기문자를 비롯해 12진법, 태음력, 법전, 바퀴가 달린 전차 등이 수메르에 의해 인류 최초로 등장한 문명수단들이다. 뿐만 아니라 수메르 신화는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등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수메르 전문가가 흔치 않다. 해독하기 힘든 썰기문자를 비롯해 고대 셈어, 이집트학, 아시리아학 등 주변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해

야인류문화의 기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을 전공하고 유일신 사상의 기원을 공부하기 위해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에 갔습니다. 1976년이었죠. 그런데 1년 공부하니깐 꼭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기원인 고대 근동의 문화와 언어였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알려면 저것부터 공부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아예 전공을 바꿔 수메르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조 박사는 무려 24년 동안 수메르 문화 현장에 폭 빠져 지내다가 지난 2000년에야 귀국했다. 히브리대 역사상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수석졸업한 조 박사는 수메르어 문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83년부터 1995년까지는 히브리대학 전임강사로 수메르어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을 가르쳤다. 남들이 이스라엘에 오면 꼭 가보는 성지조차 둘러보지 않을 정도로 집과 학교만을 오가며 수메르에 빠져 지내던 시기였다.

조 박사가 한국신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6년 국내 대학강의를 위해 한국과 이스라엘을 오가면서부터다. 당시 《한단고기》<단군세기>의 진위를 놓고 벌어진 민족사학자와 주류사학자 사이의 논쟁을 전해 들은 조 박사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 편년체는 수메르 연대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서의 창세기를 비롯해 바빌로니아, 앗시리아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거죠. 이 방식의 특징은 고대로 갈수록 인물의 영웅화나 절대화를 위해 생존기간을 길게 하고, 역사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후대로 갈수록 사실에 가깝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역사기록의 한 방식일 뿐이지 단군이 몇 년을 통치했다는 것을 두고 사실이다 아니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 박사는 유대교가 수메르 신화에서 영향을 받았듯 한국신화 역시 수메르 신화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고대신화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신라 유리제품은 지중해나 팔레스타인, 가자, 안락산드리아 지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각배角杯 역시 페르시아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나라 사람도 오고갔을 것이고 신화나 종교의식, 종교적 이념도 함께 왔을 것입니다. 특히 신화는 각색이 잘돼 다른 지역이나 문화로 빨리 전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저는 문헌으로 남아 있는 신화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물, 조각, 형상의 이동경위를 추적해본 것이죠.”

그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양대학교 인류학과 김병모 교수를 비롯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대 한반도와 중동지역과의 교류를 이야기했다. 가령 <처용가>에 등장하는 처용이 서역인이라는 주장(<주몽의 활과 처용의 노래> 271쪽)은 이미 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조 박사는 양쪽 문헌의 비교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조선 초기 집필된 <악학궤범>의 처용가에서는 처용을 ‘눈이 깊고 코가 높은 인물’ (심목고비 深目高鼻)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중국 <사서>를 보면 ‘심목고비’는 서역인을 가리키는 통상어였다는 것이다. 처용이 용의 아들(龍子)로 이해되는 대목 역시 아랍인들이 배를 타고 왔기 때문이다.

“양쪽 문헌을 비교하다 보면 가끔 전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처용설화를 보면 ‘귀신을 몰아내고 기쁜 일이 들어온다’는 뜻의 벽사진경(邪進慶)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고대 중동지역에서도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에게 복이 내릴 것이다’라는 제의 주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 박사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고대 우리 민족이 가졌던 서역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국제적인 감각이다. 그리고 단지 중국이 아니라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갔나 하는 것이다.

“신학 역시 하나의 학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경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지만 신학을 한다면 경전을 좀더 객관적으로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 박사는 현재 서강대학교와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며 먼 이국땅에서 배운 학문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 온 탓인지 가끔은 한국의 상황이 낯설다. 예를 들어 학부생들에게 성서는 편집됐다고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가 어떤 문과에 속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예수가 문과에 속하느냐며 흥분하기도 한다.

“신학 역시 하나의 학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경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지만 신학을 한다면 경전을 좀더 객관적으로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신앙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신도 그 맥락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어려움을 묻자 조 박사는 강의와 저술 외의 활동이 거의 없어 그다지 불편을 못 느낀다고 말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히브리대학에 있을 때와 달리 고민을 나누고 함께 작업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히브리대학교와 이스라엘학술원의 지원으로 해오던 수메르어 용례사전 편찬사업은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조 박사의 말은 역설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신화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가 배워온 고대 근동문화가 우리나라 역사를 새롭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조 박사는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 이외에도 미륵사상이나 음양사상을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추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